

(5)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다 (8:1a)

1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

창세기 7~8의 교차구조

- | |
|--|
| <p>A. 방주에 들어감과 홍수의 시작(7:1~11): 600세 2월 17일</p> <p>B. 40주야 동안 비가 옴(7:12)</p> <p>C. 산들이 물에 덮임(7:20)</p> <p>D. 150일 동안 물이 땅을 덮음(7:24)</p> <p>X. 주님께서 기억하사(8:1~2)</p> <p>D'. 150일 후에 물이 감함(8:3)</p> <p>C'. 산들이 보임(8:4~5)</p> <p>B'. 40일 후 창을 엮(8:6~12)</p> <p>A'. 방주에서 나옴과 예배(8:13~22): 601세 2월 27일</p> |
|--|

- 8:1/ '하나님이 기억했다': * 물의 흐름과 내러티브(이야기)의 역전을 설명.

* 홍수의 중단과 후퇴는 하나님이 방주 안의 사람을 구원하는 주도권을 가지셨기 때문.

* 하나님의 자비는 확대되어 동물까지 포함.

'기억했다': * '머릿속에 떠올리다'는 뜻이 아닌, 언약에 충실함을 나타내는 언약적인 용어

*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가나안 차지(출 2:24, 6:5; 민 10:9).

* 아브라함의 중재로 인한 롯의 구원(19:29)과 라헬의 기도예 귀 기울이심(30:22).

* 변절한 이스라엘에 대해 중재하는 모세의 요청 (출 32:13).

* 깊이 회개하는 백성에게 돌아올 근거 (레 26:42, 45).

* 언약 때문에 자기 백성에게 미래에 복을 주실 하나님을 선포 (시 115:12).

* 언약 백성은 언제나 오늘이라 주님을 기억함으로 언약 충성을 실행할 것을 기대 (신 8:18; 시 103:18).

-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여 언약에 충실해야 함.

(6) 구원의 바람 (8:1b-14)

창조의 6일 진행과 새창조

제1일	1:2	땅, 깊은, 성령(루아흐), 물
	8:1b-2a	바람(루아흐), 땅, 물, 깊은
제2일	1:7-8	물, 하늘
	8:2b	하늘
제3일	1:9	물, 마른 땅, 나타나다
	8:3-5	물, 산들의 꼭대기, 나타나다
제4일	발광체의 재창조는 불필요함	
제5일	1:20	새, 땅에서, 궁창을 가로질러
	8:7-8	까마귀, 땅에서, 지표면에서
제6일	1:24	피조물, 가축, 땅 위로 움직이는 피조물, 야생 동물
	8:17	피조물, 새, 동물, 땅 위로 움직이는 피조물
	1:26	사람, 형상
	9:6	형상, 사람

1) 홍수가 줄어들 (8:1b-5)

- 1 ...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고
- 2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
- 3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백오십 일 후에 줄어들고
- 4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이렛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
- 5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

- 8:1b-2/ '하나님(엘로힘)이': 기억하신 하나님은 '여호와'인 반면 바람을 불게 하신 것은 창조주(엘로힘)의 사역.
'바람': * 때뚜기 재앙을 불러오고 쫓아내며 마른 땅의 바다에서 자기 백성을 애굽 군대에게서 구원.
* 사막의 방랑하는 민족에게 메추라기를 주심.
'닫히고.. 그치매': 7:11-12의 역전을 서술.
- 8:3-5/ '백오십 일 후': 물이 쌓이는 것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홍수가 전도됨.
'일곱째 달... 열이렛날': * 방주가 땅에 정착하기까지 처음 비가 내린 때로부터 5개월이 걸렸음.
* 일곱째 달: 나팔절, 장막절, 속죄일 - 속죄와 하나님의 예비라는 의미에 부합.
'머물렀으며(누아흐)': '안식'이라는 노아의 이름을 연상시킴 - 그 아버지 라멕의 소망이 성취됨.

2) 땅이 마름 (8:6-14)

- 6 사십 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
- 7 까마귀를 내놓으매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
- 8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
- 9 온 지면에서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
- 10 또 칠 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매
- 11 저녁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
- 12 또 칠 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매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
- 13 육백일 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걷히니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걷혔더니
- 14 둘째 달 스무이렛날에 땅이 말랐더라

- 8:6-12/ '40일': * 비를 40일 동안 내리게 하심으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반향.
* '40일', '40년': 심판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기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음.
'까마귀'와 '비둘기': * 산봉우리가 드러난 지 40일 후에 물이 감하는 것을 측정하기 위해 새들을 날려보냄.
* 정결하여 번제로 드러진 비둘기와 부정한 까마귀의 대조
- 부정한 까마귀를 날려보냄으로써 과거의 부정이 제거되고 새창조의 새 출발을 의미.
'발 붙일 곳'(마노아흐): '노아'의 언어 유희.
'감람나무 새 잎새': * 성막과의 연관성(감람유).
* '비둘기'와 함께 성령의 능력있는 임재, 메시아의 사역을 상징(눅 4:8; 마 3:16).
'칠 일, 칠 일': 7:4의 칠 일은 하나님의 인내인 반면 방주 안에서의 칠 일은 노아 가족의 인내.
'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': 방주 안에 있는 생명들에게 자유를 선포.
- 8:13-14/ '뉘네': 회막을 가리키는 성막 용어 -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노아와 함께 하심.
'말랐더라': * 1년 11일 만에 물이 만든 마지막 자취가 사라짐.
* 이스라엘이 '마른' 땅을 건넌(출 14:16, 15:19; 수 3:17, 4:18).

(7) 방주에서 나옴 (8:15-19)

15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
 16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
 17 너와 함께 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
 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
 18 노아가 그 아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
 19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

- 8:15-17/ '하나님이... 이르시되': * 하나님의 세 번째 말씀 - 방주에서 나오고... 이끌어내라.
 * 물이 차오르고 감한 1년 동안 노아는 하나님께 아무런 말씀도 듣지 못하고 기다림.
 - "노아는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자기 매장지 바깥으로 한 발짝도 떼지 않았다" / 칼빈
 '생육하고 번성하리라': 사람과 동물에 대한 번성의 약속. 첫 창조에 내려진 하나님의 강복을 회상하게 함.
- 8:18-19/ '나왔고, 나왔더라': 홍수 기사 전체에 반복되는 노아의 순종하는 성품을 강조.
 - 방주로 들어갈 때와 마찬가지로 방주를 떠날 때도 하나님께 순종함.

(8) 예배와 약속의 말씀 (8:20-22)

20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
 더니
 21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
 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
 니하리니
 22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

- 8:20/ '제단을 쌓고': * 주님의 구원에 대한 응답으로 희생 제단을 세움 - '제단'에 대한 첫 기사.
 * 노아는 아브라함(12:7-8, 13:18)의 육체적인 선조였을 뿐만 아니라 신앙에서도 경건한 선조.
 * 모세는 시내 언약을 비준하는 의식에서 준행
 - '제단', '정결한 동물', '정결한 새' 등 본문의 언어를 공유
 * 희생 제사와 예배를 통해 주님을 창조주요 구세주로 인정하는 것이 인간의 의무임을 증명.
 * 창세기로부터 죄악된 인류는 항상 하나님과의 중재가 필요했음을 일깨움 - 그리스도를 예표.
 '번제': * 정결한 동물과 정결한 새를 바치는 후대 이스라엘의 관습에 대한 전조.
 * 후에 번제는 성막에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로 화목제와 결합.
 * '바쳤다(하알레)'라는 동사로 서술되는데 그 의미는 '상승하다'- 연기와 향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의미.
 * 완전히 태우는 제사로써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헌신을 의미.
- 8:21/ '그 향기(레아흐 한니호아흐)': * '기쁘게 하는 향기', '안식의 향(루터)' 이라는 의미.
 * '노아(안식)'와 관련된 언어 유희.
 '받으시고': * 노아의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을 호의적인 응답으로 표현하심.
 * 노아의 예배가 하나님의 상심한 '마음'을 진정시켰음.
 * '그 향기를 받으시고': 모세오경에서 희생 제물과 예배자를 향한 하나님의 호의의 전형적인 표현.
 '중심에 이르시되'... : * '마음으로'. 주님의 과거 생각은 멸망을 불렀지만 심판 이후에는 저주와 멸망을 억제.
 * 땅의 멸망을 결정하신 6:5의 반향. '성향', '그의 마음', '악한' 등 같은 단어를 사용.
 '저주하지 아니하리니': * 홍수 이후 하나님의 두 가지 맹세 중 첫 번째 맹세.
 * 아담의 범죄가 초래한 저주의 경감이 아님.
 - 이미 부담을 안고 있는 땅 위에 더 이상 고통 부과하기를 중지하심.
 * 홍수 심판으로도 인간의 사악함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을 것을 예고.
 '이는 사람의 마음의 계획하는 바가': '비록 사람의...' 또는 '악하기 때문에' 로 이해해야 함.
 '멸하지 아니하리니': 홍수 이후 두 번째 맹세.
- 8:22/ '심음, 거둠, 추위, 더위, 여름, 겨울': 계절의 변화가 여호와와 선포로 인한 것임을 증거.
 - 계절 변화를 '모성의 대지'에서 비롯된다고 여긴 가나안 종교와의 비교.
 '쉬지 아니하리라': 인간의 변칙적인 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세상과 주기에는 규칙이 존재.
 '땅이 있을 동안에는': 그러나 현재의 땅과 하늘이 언젠가는 그칠 것을 암시 (벧후 3:3-7).